

헤도닉 가중치 및 불안정 강도를 활용한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

이병훈** · 김은경*** · 송리라****

요약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3~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취업자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차원적 분석은 차원지표들(일자리 불확실, 소득 불충분, 노동조건 취약, 사회보호 불안전)의 상이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헤도닉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불안정 노동의 강도를 반영하는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을 산출-제시하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2013~2019년의 기간에 불안정 노동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6.04~21.35%로 나타나 가중치 미적용의 29.28~32.9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불안정 차원의 강도를 산출-반영하는 조정된 비율(M_0) 값은 같은 기간에 11.75~15.65%로 측정되고 있다.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의 비율을 및 강도를 살펴보면, 노년이 가장 많이 불안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임금-비정규직-고졸 이하 학력과 여성의 순으로 가중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시계열상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비임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비정규직 > 노년 > 고졸 이하 학력 > 여성의 취업자집단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전체 취업자 대상 또는 하위집단별로 노동 불안정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책 처방을 마련코자 할 때, 가중치와 강도를 감안한 다차원적 분석이 그 문제 현황과 변동추세를 보다 엄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요어: 불안정 노동, 다차원 분석, 불안정 노동 지수, 헤도닉 가중치, 불안정 노동 강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 3530).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hlee@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witheunk@gmail.com)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miff187@naver.com)

1. 머리말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디지털 기술혁명 등을 배경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더불어 불안정 노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Della Porta et al., 2015; ILO 2016; 신경아, 2019).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정규직 대상의 고용조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1999년 하반기의 급속한 경제 회복으로 기업들의 비정규직 인력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형태는 임시직에서 간접고용의 파견·도급 그리고 특수고용종사자로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서비스 및 지식·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취업형태가 확산되더니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직(Gig)노동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낮은 소득 및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어지는 주변 노동시장(marginal labor market)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자들이 또 다른 불안정 노동자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기존 종사상 지위에서든 또는 새로운 취업형태로든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책담론 그리고 사회운동적 대응이 크게 늘어났다(Armano et al., 2017; Manolchev et al., 2018).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책·실천적 대응과 더불어 연구성과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¹⁾ 그런데, 불안정 노동에 대해 수행되어온 국내의 학술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각자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에 따라 분석대상과 개념적 범주화 그리고 측정지표 조작화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그 규모와 특성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노동자집단을 지칭하여 연구자별로 불안정 취업자, 비표준 또는 비전형 노동자, 고용취약 노동자, 프리캐리아트(Precariat)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용어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 포괄범위에 대해서도 임금 노동자,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등으로 각기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측정방식 역시 노동조건외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조작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구자마다 불안정 노동인구에 대해 매우 차이 나는 규모 추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 노동의 복합적 성격에 주목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

1) Google 학술검색(scholar.google.com)과 Naver 학술정보(academic.naver.com)를 통해 '불안정 노동'을 검색어로 연구논문과 전문도서를 찾아본 결과 각각 총 79건과 61건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학술연구에서 불안정 노동이 중요 주제로 다뤄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추나라(Choonara, 2019)에 따르면 Google 학술검색의 결과를 기준으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영어권 학술논문의 수가 2000년의 40건에서 2019년의 10,900건으로 250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였으나,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론적 접근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의 이해를 넓혀주는 한편 적잖은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불안정 노동에 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현상의 분석대상과 측정지표에 대해 타당한 이론적 논거와 신뢰할 만한 조작화 기준을 마련-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의 복합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우리 연구에서는 다차원 지표들의 가중치(weight)와 복합지수 조정값(adjusted value of composite index)을 산출-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차원별 영향력 차이를 가중치로 반영하고 복합지수의 산출에 있어 불안정 노동의 강도(intensity)를 고려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실제적 파악을 위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금-비임금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최근 코로나19 질병재난 상황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과 정책의 통합적인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불안정 노동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또한, 차원별 가중치와 조정값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성별·연령·학력·종사상 지위의 주요 하위범주별로 불안정 노동의 시계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불안정 노동에 관해 발표된 국내의 첫 학술연구로는 1960년대~1980년대의 기간에 불안정 취업자들의 세부 구성과 변화추세를 살펴본 윤진호(1990)를 손꼽을 수 있다. 윤진호(1990)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산업화국면에서 형성되던 불안정 취업자집단을 임시·일용 노동자와 영세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규정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²⁾ 황덕순(2000) 역시 1997년~1998년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불안정 취업층의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 취업자의 범위를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주35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로 구성하고 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 불안정 노동에 대한 국내 학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이 적잖은 수의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분

2) 윤진호(1990)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대비 불안정 취업자의 비율이 1963년의 23.9%에서 1985년의 38.9%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초점에 따라 분석대상, 연구방법 및 조작적 측정, 그리고 분석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불안정 노동의 분석대상이 넓게는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잠재 또는 숨은 실업자)부터 취업자 전체(임금·비임금 노동자) 또는 일부(비정규직과 자영자), 좁게는 임금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로 상이하게 설정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조작화하고 있는데, 그 측정방식을 단순화하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지표의 어느 한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최혜지·정은수(2018)의 경우에만 객관적·주관적 측면 모두를 측정하여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³⁾ 일부의 연구에서는 고용계약 또는 종사상 지위의 단일 기준을 활용하여 노동 불안정성의 여부를 측정하였지만, <표 1>에서 예시하듯이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불안정 노동의 복합적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소득-사회보호 등을 조작화한 다차원 지표를 기준 삼아 불안정 노동을 판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승윤 등(2017)은 불안정 노동의 구성요인으로 고용과 임금/소득을 객관적인 판별기준으로 설정하여 불안정 수준의 다단계 분석(모두 불안정-일부 불안정-모두 안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김영아·분뉴일(Bonneuil)(2019)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합하여 유형화하여 불안정 노동의 시계열 인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나 분석방법에 따라 국내 불안정 노동인구의 규모/비율에 대해 큰 차이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의 62%(강남훈, 2013)로부터 취업자의 약 31~32%(성재민, 2021),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35.4%(정홍준, 2020)에 이르기까지 상이하게 추산하고 있다. 이같이, 불안정 노동에 대해 높아지는 학계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연구문헌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나 분석방법 등에 따라 ‘백가쟁명’식으로 매우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노동 불안정의 이론적 개념화와 조작적 측정 그리고 연구대상 설정에 있어 노동연구차원의 학술적 중론을 모아가기 위해 논증의 엄밀성을 확충하려는 방법론적 개선이 요망된다.

3) 최혜지·정은수(2018) 그리고 여러 서구 연구문헌에서 지적하듯이, 불안정 노동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지/평가상태가 별개의 조작적 측정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이번 연구에는 불안정 노동의 객관적 분석에 집중코자 하고, 객관-주관 지표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후속 연구과제로 다룰 것임을 밝혀둔다.

[표 1] 불안정 노동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 개관

구분	분석대상	측정지표	비고
김수영·하은솔·김영(2020)	비정형 노동자	경제적·관계적·존재적 차원의 주관적 평가	질적 인터뷰 조사
김영아·Noël Bonneuil(2019)	임금 노동자	고용 불안정성과 일자리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1998년~2017년 시계열 분석
김정규·김교성(2019)	임금 노동자	임금·사회보험·고용지위의 객관적 지표 조합	4등급 지표의 시계열 분석
최혜지·정은수(2018)	임금 노동자	고용지위/임금/연금가입의 객관적 지표 & 고용안정의 주관적 평가	고령자의 삶의 질 영향 분석
변금선·이혜원(2018)	임금 노동자	고용상태와 고용지위 변화	정신건강에의 영향 분석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7)	임금·비임금 노동자	고용(E)·소득(W)·사회보호(S)의 객관적 지표 조합	8개 조합의 4등급 구분 (EWS~ews)
이호연·양재진(2017)	임금 노동자	임금·사회보험·고용지위의 객관적 지표 조합	피치셋 분석
서정희·박경하(2015)	비정규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계약·근로조건 불안정의 객관적 지표	노동패널의 종단분석
백승호(2014)	경제활동인구 및 잠재 실업자	고용·소득·사회적 임금의 불안정 객관적 지표	경제활동인구 대비 40%~50% 추정(2010년)
강남훈(2013)	경제활동인구 및 숨은 실업자	고용·소득·활동상태의 객관적 지표	경제활동인구의 62% 추정
황덕순(2000)	임금 노동자	고용지위의 객관적 지표	외환위기 전후 변동분석
윤진호(1990)	경제활동인구	종사상지위의 객관적 지표	1960년대~1980년대 변동분석

서구 학계에서도 불안정 노동에 대해 높은 연구관심이 모아지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일치된 개념 정의와 공유된 분석방법을 찾아보기 어렵다(Broughton et al., 2016; García-Pérez et al., 2020). 그런 가운데, 일부의 연구에서는 정규-비정규, 표준-비표준, 공식-비공식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비정규-비표준-비공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기도 하였지만⁴⁾(불안정노동연구모임, 2000; Vosko, 2010), 최근까지 다수 연구에서는 나쁜 일자리 질이라는 점에 초점 맞추어 불안정 노동의 개념을 규정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접근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다(Rodgers & Rodgers, 1989; Kalleberg, 2009; Fullerton, Robertson & Dixon, 2011). 서구의 연구문헌에서 일자리의 질적 조건을 중심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규정함에 있어 여러 특성을 포

4) 채석진(2016)은 국내연구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해 노동시장의 주변적 지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며, 서구 연구에서 활용되는 'precarious'의 이론적 개념이 취약한 일자리/노동의 복합적 특성을 함의하는 만큼 '불안정성' 대신에 '취약성'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같은 주장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미 국내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학술적 전문개념으로서 뿐 아니라 일상 용어로 널리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불안정'이라는 개념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괄하다 보니 불분명하거나 다면적인(vague & multifaceted) 개념으로 다중적 어의(polysemantic)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⁵⁾(Munck, 2013; Armano et al., 2017). 실제, <표 2>에서 예시하듯이 서구의 주요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해 다차원적 구성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연구자마다 그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서구의 연구문헌에서 나쁜 일자리 질(bad job quality)을 구성하는 주된 조건을 기준 삼아 불안정 노동의 개념적 요소를 논의하는 경우, 대체로 일자리 유지의 불확실성(uncertainty), 노동소득의 불충분성(inadequacy), 노동조건 취약성(vulnerability), 그리고 사회보호 및 권익대변의 불안전성(insecurity)을 중심으로 그 일자리의 문제상태를 진단-측정하고 있다(Kalleberg, 2011; Hewison, 2016; Kalleberg & Vallas, 2017; 신경아, 2019). 아울러,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에서 그 구성요소들의 영향력 차이를 감안하는 경험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론적 개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Fudge, 2017; García-Pérez et al., 2020).

[표 2] 불안정 노동에 관한 서구 연구의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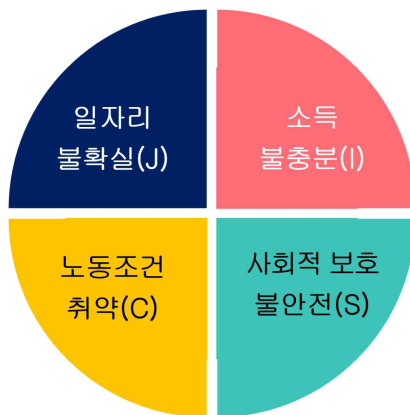
연구자	개념의 구성 요소
Rogers & Rogres(1989)	(일자리유지의) 불안정성(instability) (노동조건 등의 통제권 결여 함의) 불안전성(insecurity) (노동권·사회보험의 보호 부재 의미) 비보호(non-protection) (저소득의) 취약성(vulnerability)
Vosko(2010)	(일자리 유지의) 불확실성(uncertainty), 저소득, 사회보험 및 제도보호 미비
Standing(2011)	7개 영역의 안전성(security) 결여: 고용·일자리(해고방지)·직업(경력)·작업장(산재질병)·역량(숙련훈련)·소득·권익대변
McKay 등(2012)	소득 불충분 및 체불 고용 불안정(해고로부터 보호 부재) 및 하향취업 사회안전망 부재 안전보건 위험 상존
ILO(2012)	(일자리 유지 및 고용지위의) 불확실성(uncertainty), (사회안전망의 보호 배제, 저소득, 노조 가입의 제한 등 함의) 불안전성(insecurity)
ILO(2016)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경력 발전 전망 부재의 불안전(insecure) 일자리

5) 아울러, 영어권 연구문헌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 (Neilson & Rossiter, 2005), 특히 precariousness와 precarity로 구별하여 전자를 일과 노동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칭하고 후자를 정치적 저항과 노동해방의 이념적 지향을 담지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trauss, 2018). 또한, 사전트(Sargeant, 2016)에 따르면,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대해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과 시기적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이 상이하야 캐나다와 미국에서 비표준적 고용(nonstandard employment)과 한시직 취약노동자(contingent & vulnerable workers)로, EU에서의 비전형 고용(atypical employment)으로 각각 달리 지칭하였다가, 점차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의 용어표현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한된 보호장치(특히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Lambert & Herod (2016)	소득 불충분, 사회입금(의료&사회보험) 미비, 제도적 보호(법 & 노조) 부재, 고용조건 통제 권 부재
Sargeant(2016)	일자리 불안정성(instability), 사회보험 부재, 저소득, 노동과정 통제 결여
Kreshpaj 등(2020)	고용 불안전성(insecurity), 소득 불충분(inadequacy), 노동권-사회보험의 비보호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불안정 노동의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을 일자리의 불확실(uncertainty), 소득의 불충분(inadequacy), 노동조건 취약(vulnerability),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불안전(insecurity)을 중심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1) 그 일자리의 지속성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2) 노동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소득의 수준이 생계유지에 충분한지, (3) 노동수행 및 업무환경의 조건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하며 적절한 노동생활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4) 실직이나 안전사고 등과 같은 노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동안전망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불안정한 노동의 상태를 판별하는 객관적 측정의 핵심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특성요건들이 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차원적 분석에 있어 차원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이론적으로 불안정 노동에 대해 4개 범주의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하여 조작화할 것이며, 특히 구성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불안정노동지수(Precarious Labor Index, PLI)를 측정하여 불안정 노동 인구 비율을 추산해보기로 한다.

[그림 1] 불안정 노동의 개념적 구성



3. 연구방법

1) 다차원 불안정노동지수(PLI) 산출과 적용의 진행프로세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불안정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알카이어와 포스터(Alkire & Foster, 2011)가 개발하고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ia-Pérez et al., 2017; 2020)이 발전시킨 차원계수방법(Count Approach)을 활용하여 불안정노동지수(PLI)를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차원별 가중치와 노동 불안정의 강도를 반영하는 조정된 불안정노동지수(Adjusted PLI)의 산식을 마련하여 전체 취업자 및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실증분석을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진행된 4단계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차원 불안정 노동(Multi-dimensional Precarious Labor)의 객관적 지표 조작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을 일자리 불확실(job uncertainty), 소득 불충분(income inadequacy), 노동조건 취약(vulnerability of working conditions), 그리고 사회적 보호 불안전(insecurity of social protection)이라는 4개 차원(dimension)으로 설정하였다. 4개 차원의 개념요소들을 조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각 차원의 지표를 대상으로 불안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값(z_j)을 설정하였다. 우선, 일자리 불확실(J)은 일자의 규칙성 여부를 불안정 기준으로 삼았다. 일자리 규칙성은 일의 '맞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자리(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규칙적이라 간주하고, 직장 또는 일거리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 불규칙적이라 보았다. 일자리가 단속적인 형태로 불규칙적인 경우, 즉 현재 일자리의 유급노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의 불확실한 상태를 적절하게 표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득 불충분(I)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저소득(중위소득 2/3 미만)의 기준을 대신하여 각 연도의 월 단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⁶⁾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정 소득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득의 충분 여부를 따지는 적절한 기준으로 간주하였다.⁷⁾ 노동조건 취약(C)은 주당 노동시간의 과다·과소 여부를 기준 삼아 판정하였

6) 월 단위 최저소득은 시간당 최저임금 × 월 209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http://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jsessionid=QY05pwM3KX-tY5tm8gLErrwG.node10>).

7) 2013~2019년의 기간에 한국노동패널의 분석표본(취업자)에 있어 저소득(중위소득 2/3 미만)의 비율이 22.64~27.30%이었던 것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의 비율은 18.72~29.06%로 좀더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다. 구체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일-생활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1주 최대 52시간 상한보다 더 일하는 경우(과다노동)와 노동관계법에 따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노동에 해당되는 경우(과소노동)를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취약한 상태로 조작화하였다. 사회적 보호 불안전(S)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가 실업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를 조작화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어느 하나라도 가입치 않는 경우를 사회적 보호의 불안전한 상태로 간주하였다. <표 3>에서는 불안정노동지수를 구성하는 4개 차원의 조작화지표(operationalized indicators)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불안정노동지수(PLI)의 4개 차원 조작화지표

차원(D)	조작화지표	불안정 판별 기준값(z _j)
일자리 불확실(J)	일자리 불규칙적	불규칙하게 일함
소득 불충분(I)	법정 최저임금 미만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
노동조건 취약(C)	노동시간 과소-과다	주15시간 미만 또는 52시간 초과
사회적 보호 불안전(S)	노동안전망 미가입	고용·산재보험의 하나라도 가입치 못한 경우

개별 취업자(*i*)가 각 차원(*j*)에서 갖는 관찰값인 X_{ij} 는 차원별 불안정 판별 기준값(z_j)에 미치는 여부에 따라 해당 차원에 0(안정) 또는 1(불안정) 값이 매겨진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취업자들은 4개 차원의 불안정성 여부를 합산하여 최소 0점부터 최대 4점까지의 불안정노동지수 예비값(P_i)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P_i = \sum_{j=1}^D w_j I_{X_{ij} < z_j} \quad i = 1 \dots n \quad (1)$$

(2) 노동 불안정의 차원별 가중치 추정과 불안정노동지수 산출

불안정노동지수를 구성하는 4개 차원이 노동 불안정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의 상대적 크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수 구성에 있어 그 비중/영향의 크기 차이를 반영하는 가중치(weights)의 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대해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합지수(composite index)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수가 구성요소(지표)들의 실제 영향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왜곡된 값을 보여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OECD, 2008). 가중치의 산출방식은 통상 연구 목적이나 분석자료의 특성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에 따라 결정된다.⁸⁾ 이번 연구에서는 헤도닉 가중치(hedonic weights)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일자리 특성의 정보와 일자리에 부여하는 피조사자의 평가점수를 상호 연계시켜 불안정 노동의 차원별 가중치를 추정코자 하였다.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은 연구자가 분석대상의 복합적 현상(예: 노동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복수의 개념적 차원을 조작화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분석현상과 관련된 피조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선택된 객관 지표들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수량화하는 방법이다(Decancq & Lugo, 2013).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이 갖는 주된 이점은 국가와 문화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같이 피조사자들이 위치하는 시공간적 맥락 위에서 그들이 연구대상의 사회 현상을 구성하는 객관적 지표들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 또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가중치 값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카바포찌 등(Cavapozzi et al., 2015)은 빈곤의 다차원적 지표들이 갖는 상대적 구성비중을 반영하는 타당한 가중치를 찾아내기 위해 세 가지의 가중치 산출방식(동일 가중치, 빈도 가중치, 그리고 헤도닉 가중치)을 비교 검토한 결과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빈곤의 다차원적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점을 밝히고 있다.

헤도닉 가중치의 이점에 주목하여 노동 불안정의 복합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다차원 지표들의 헤도닉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한 최근 연구로는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ía-Pérez et al., 2020)을 손꼽을 수 있다.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ía-Pérez et al., 2020)은 스페인 노동시장의 현실 여건하에서 노동 불안정 상태의 핵심적 구성조건으로 주되게 문제시되는 8개 차원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¹⁰⁾, 피조사자들의 일자리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8개 지표 및 주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OLS회귀분석을 통해 지표들의 회귀계수 값을 헤도닉 가중치로 환산함으로써 다차원 고용불안정지수(multi-dimensional employment precariousness index)를 측정

8) 국가비교의 복합지표 개발에 대한 방법론적 핸드북을 제시하고 있는 OECD(2008: 31-34)에 따르면 다차원 지수(multidimensional index)의 가중치 산출방법은 통계 모델의 활용방법(예: factor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unobserved components models UCM 등)과 정책적 우선순위 또는 이론적 고려사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활용의 참여적 방법(participatory methods)(예: budget allocation processes BAP, analytic hierarchy processes AHP, conjoint analysis 등)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9) 아울러,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다음의 장점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보다 정교화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첫째,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을 위해 이용되는 회귀분석에서 각 차원의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주관적 변수(예: 삶 만족도, 행복도)에 대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차원이 미치는 영향/효과의 크기(회귀계수 regression coefficient)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평가대상이 되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선형 모형 뿐 아니라 다항로짓 등의 다양한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차원별 계수/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 셋째, 패널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들이 지닌 인적 특성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할 수 있다. 넷째, 인구학적 변수들을 활용하는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가중치의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Decancq and Lugo, 2013; Chaaban et al., 2016).

10)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ía-Pérez et al., 2020)은 노동 불안정을 구성하는 다차원 지표로서 저임금, 기간제 고용계약, 비자발적 파트타임제, 연장근로, 하향취업(Overqualification), 야간근로, 주말근무, 교대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의 고용불안정지수를 구성하는 8개 차원지표의 가중치(합계 8 점) 값은 0.557(교대제근무)~2.435(기간제 근로계약)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출된 8개 차원의 가중치 값을 반영한 다차원 고용불안정의 지수값이 2006~2015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arcía-Pérez et al., 2020).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ía-Pérez et al., 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불안정노동지수를 구성하는 4개 차원의 요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중치)를 파악하기 위해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였다. 헤도닉 가중치(W_j)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정된 불안정노동지수의 4개 차원지표가 피조사자(취업자)의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개별 효과를 추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차원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와 회귀계수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중회귀분석모형에는 노동불안정의 다차원적 지표 요인들 뿐 아니라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산업, 직종, 정규직 여부 등의 주요 통제변인들을 포함하였다. (2)의 회귀분석모형에서 Y_i 를 취업자 i 의 일자리 만족도로 설정하여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불안정 노동의 4개 차원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들 지표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여 헤도닉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 차원변수의 표준화 계수(Beta)를 모두 합한 값을 기준으로 각 차원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계수의 상대적 비율을 가중치 합(4점)에 적용하여 불안정노동지수에 대한 각 차원의 가중치 값이 산출되는 것이다.

$$Y_i = \alpha_1 I_1(x_1^i) + \dots + \alpha_m I_m(x_m^i) + \varepsilon^i \quad (2)$$

<표 4>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불안정노동지수의 4개 차원 변수가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와 그들의 가중치 환산값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노동지수의 4개 차원변수 모두 일자리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 불충분(1.66)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불확실(0.93), 사회적 보호 불안전(0.88), 노동조건 취약(0.53)의 순서로 가중치 크기의 차이가 적잖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을 통해 노동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경우 4개 차원이 동일한 비중으로 기여하기 보다, 불충분한 소득 > 불확실한 일자리 > 불안정한 사회적 보호 > 취약한 노동조건의 순서로 상이한 크기(가중치)의 영향력을 보인다. 분석표본의 취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차원별 가중치 값을 합산한 불안정노동지수 값(P_i)을 부여하였다.

[표 4] 헤도닉 가중치(hedonic weights)의 산출 결과

차원(준거=안정)	Coef.	Beta	Weight (%)
일자리 불확실(J)	-.128102***	-.0697262	0.93 (23.2)
소득 불충분(I)	-.1250023***	-.0880386	1.66 (41.5)
노동조건 취약(C)	-.0398366***	-.0272255	0.53 (13.2)
사회적 보호 불안전(S)	-.0665723***	-.0561788	0.88 (22.1)
합계		-.3011374	4.00 (100.0)

주) ***p<.001

(3) 불안정 노동 비율(Precarious Labor Ratio)의 산출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노동지수 값(P_i)은 취업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 개인 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지만, 노동인구의 전반적인 불안정 상태를 파악-진단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노동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노동 불안정의 기준값(k)이 필요하다. 어느 수준(cutoff) 이상의 불안정성을 보일 때 불안정한 노동으로 간주할지의 판별기준은 이에 대한 학계차원의 합의가 존재치 않은 만큼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별기준으로 불안정노동지수 값(P_i)의 중간값에 해당되는 2점 이상($k \geq 2$)인 경우를 불안정 노동으로 간주하였다. 즉, 취업자 개인이 갖는 불안정노동지수 값(P_i)이 2점 미만인 경우 0(안정적 노동), 2점 이상인 경우 1(불안정한 노동) 값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분석표본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취업자 규모(q)를 추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3)의 공식에서 예시하듯이 전체 취업자(분석표본 n) 중 불안정한 노동의 취업자(q)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불안정 노동 비율(PL, H)이 산출된다.

$$H = \frac{\sum_{i=1}^n I_{P_i \geq k}}{n} = \frac{q}{n} \quad (3)$$

(4)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Adjusted Precarious Labor Ratio)

불안정 노동 비율(PL, H)은 그 산출방식이 간명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원 단조성 공리(property of dimensional monotonicity)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원 단조성 공리란 취업자의 노동 불안정을 측정할 때 차원지표 수의 증가, 즉 노동 불안정성의 강도(intensity)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을 의미한다. 차원 단조성 공리에 따르면, 불안정한 노동의 취업자(q)라 할지라도 4개의 차원 중 2개의 차원에

서 불안정을 겪는 취업자 A와 4개 차원 모두에서 불안정을 겪는 취업자 B가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의 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비율(H)은 취업자의 일자리가 일정 기준 이상의 불안정성($k \geq 2$)을 담지하면 단순히 불안정 노동($=1$)으로 간주하여 전체 취업자(분석표본) 대비 해당 비율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불안정 차원의 누적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불안정 노동 비율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르시아-페레자 등(García-Pérez et al., 2017; 2020)이 제시하는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Adjusted PL, M_0)의 방법론적 유용성에 주목하여 활용코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은 불안정 노동 비율(H)에 평균 결핍비율(average deprivation share) 즉, 불안정 노동의 강도(intensity of precarious labor, A)를 반영하여 산출된다(산식 6 참조). 또한, 불안정 노동의 강도(A)는 불안정노동지수 값(P_i)이 2점 이상($k \geq 2$)인 (불안정 노동) 취업자 전체의 불안정 차원 평균값(μ_p^q)을 불안정 다차원의 총수($D=4$)로 나눈 값이다(산식 4와 5를 참조할 것).

예를 들어, 불안정 노동에 해당되는 취업자들이 4개 차원 모두에서 불안정의 조건에 놓인 경우를 100%라 가정하였을 때 그 (불안정) 취업자들이 실제 평균적으로 3개의 불안정 차원 수를 보인다면, 불안정 노동의 강도(A)는 $0.75(=3/4)$ 로 계산된다. 이어, 분석표본의 취업자 100명 중 80명이 불안정한 취업자(q)이고 이들의 불안정 강도(A)가 0.75라면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은 $60\%(80\% \times 0.75)$ 가 된다. 따라서,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Adjusted PL, M_0)은 전체 취업자 중 불안정한 노동의 취업자 비율을 의미하는 불안정 노동 비율(H)에 비해 그 불안정의 강도(intensity, A)까지를 감안하여 계산된 수치인 만큼 보다 엄밀한 (불안정 노동의)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mu_p^q = \frac{\sum_{i=1}^n P_i I_{P_i \geq k}}{\sum_{i=1}^n I_{P_i \geq k}} \quad (4) \quad A = \frac{\mu_p^q}{D} \quad (5) \quad M_0 = \frac{\sum_{i=1}^n P_i I_{P_i \geq k}}{nD} = \frac{q}{n} \frac{\mu_p^q}{D} = H \cdot A \quad (6)$$

끝으로,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은 역으로 불안정 노동 비율(H)과 불안정 노동 강도(A)로 분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위집단별 분해(subgroup decomposition)가 가능하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분절구조를 감안할 때, 성·고용지위·학력 등의 주요 분절선에 따라 노동 불안정성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노동 불안정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전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주요 집단별주별로 불안정 노동의 상세 실태를 점검하려는 입체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공식 (7)에서 보여주듯이 조정

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은 주요 범주들(예: 성별·연령·학력·종사상 지위 등)의 하위집단별 취업자비율(n_i/n)과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i})로 세분화하여 하위집단 간 노동 불안정의 심각성 정도를 비교·검토해볼 수 있다.

$$M_0 = \sum_{i=1}^s \frac{n_i}{n} M_{0i} \quad (7)$$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번 연구는 불안정노동지수(PLI)를 구성하는 4개 차원지표의 측정이 모두 가능한 16차(2013년)~22차(2019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설정하였다. <표 5>에서 보여주듯이, 이번 연구의 분석표본이 2013~2017년의 기간에는 5,973~6,553명이었으나 2018~2019년에는 1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분석표본의 이같은 급증은 2018년에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 제고를 위해 신규 5,152가구의 추가에 따른 것이다. 신규표본은 조사의 연속성 유지를 고려하여 기존 패널과 단절된 새로운 코호트(cohort)를 추가하기보다 모집단 변화와 변형된 패널 특성을 보완해 기존 패널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김유빈 외, 2019).¹¹⁾ 신규표본, 기존표본, 통합표본을 각각 분리하여 각 차원별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2013~2019년 기간에 걸친 시계열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된 분석표본을 활용하였다.

<표 5>에서는 2013~2019년 기간의 패널자료로부터 추출된 전체 취업자의 분석표본에 대해 하위집단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집단 분석을 위해 남녀의 성별, 청년-중장년-노년의 연령, 고졸 이하-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정규직-비정규직-비임금의 종사상 지위로 범주별 집단구분을 설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집단은 청년을 청년기본법의 법정 정의에 따라 만15~34세, 중장년을 만35~64세, 그리고 노년을 만65세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정부(통계청)의 공식 기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임금으로 나눠 검토하였다.¹²⁾ 분석표본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중장년·고졸 이하·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11) 21차(2018년) 통합표본의 가구 수 분포는 모집단과 거의 일치하며, 가구원 수 분포 역시 모집단의 분포와 일치한다. 신규표본에서 고령가구 및 60대 이상 여성의 고령층 비중이 약간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21차 통합표본에서 가구의 성별 분포 역시 기존표본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표본과 21차 통합표본이 현재의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표본 설계과정, 기존표본 및 모집단과의 연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9)를 참조할 것.

12) 비정규직 범주에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용역·특수형태노동종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3~2019년 기간에 있어 여성·노년·전문대졸 이상·비정규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과 비임금 취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예시하듯이, 2019년을 기준 삼아 이번 연구의 분석표본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통계와 비교해보면 연령집단에 있어 청년층의 과소대표(-7.07%)와 노년층의 과대대표(+5.39%)에 대해 유의할 점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다른 하위집단의 범주구성에서는 ±3% 내외의 편차를 보이는 정도에 그쳐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취업자인구의 노동 불안정 정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분석표본의 주요 하위집단별 범주구성

(단위: 명, %)

구분 (분석표본 수)	2013 (5,973)	2014 (5,897)	2015 (6,149)	2016 (6,350)	2017 (6,553)	2018 (10,205)	2019 (10,156)	경향통계 2019
성별	남성 (62.45)	3,698 (62.71)	3,856 (62.71)	3,922 (61.76)	4,028 (61.47)	6,294 (61.68)	6,183 (60.88)	57.01
	여성 (37.55)	2,243 (37.29)	2,293 (37.29)	2,428 (38.24)	2,525 (38.53)	3,911 (38.32)	3,973 (39.12)	42.99
연령	청년 (22.30)	1,153 (19.55)	1,197 (19.47)	1,149 (18.09)	1,184 (18.07)	1,752 (17.17)	1,693 (16.67)	23.74
	중장년 (68.29)	4,132 (70.07)	4,300 (69.93)	4,504 (70.93)	4,623 (70.55)	7,071 (69.29)	6,965 (68.58)	66.91
	노년 (9.41)	612 (10.38)	652 (10.60)	697 (10.98)	746 (11.38)	1,382 (13.54)	1,498 (14.75)	9.36
학력	고졸이하 (59.64)	3,508 (59.49)	3,534 (57.47)	3,596 (56.63)	3,626 (55.33)	5,758 (56.42)	5,631 (55.45)	52.62
	대졸이상 (40.36)	2,389 (40.51)	2,615 (42.53)	2,754 (43.37)	2,927 (44.67)	4,447 (43.58)	4,525 (44.55)	47.37
종사상 지위	정규직 (47.97)	2,681 (45.46)	2,916 (47.42)	3,029 (47.70)	3,122 (47.64)	4,654 (45.61)	4,723 (46.50)	47.80
	비정규직 (21.45)	1,448 (24.55)	1,426 (23.19)	1,492 (23.50)	1,599 (24.40)	2,604 (25.52)	2,675 (26.34)	27.34
	비임금 (30.59)	1,768 (29.98)	1,807 (29.39)	1,829 (28.80)	1,832 (27.96)	2,947 (28.88)	2,758 (27.16)	24.85

주)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는 취업자 기준으로 2019년의 범주별 구성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며, 종사상 지위에 한해 2019년 8월(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구성비임.

자·가정내근로자·일일(단기)근로자로 구성된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

4. 분석결과

1) 전체 취업자 대상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표 6>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4개 차원에 속하는 취업자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차원별로 살펴보면, 2013~2019년의 기간에 있어 일자리 불확실이 10.15~12.84%로 가장 낮은 취업자 비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임금 취업자를 포함하는 분석표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의 불안전이 40.24~45.71%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에 그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는 소득 불충분과 노동조건 취약의 경우에는 상대적 비율의 크기가 바뀌어 전자의 차원이 세 번째에서 두 번째(2013년 17.13% → 2019년 27.88%)로, 그리고 후자의 차원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2013년 24.16% → 2019년 16.44%)로 각각 순위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소득 불충분과 노동조건 취약의 이같은 순위변동은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의 16.4%와 10.9% 인상과 주52시간 상한제 법제화 그리고 경기침체 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소득 불충분)의 경우 불안정 기준(법정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으로 그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자 비율이 2017년 대비 7~8% 늘어난 것이며, 후자(노동조건 취약)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의 도입에 맞춰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일부 줄어들었으며, 특히 자영업의 불경기로 인해 비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당히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 불안정 노동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그 불안정성의 구성차원/요소들이 관련 정책 시행 또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경기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 영향의 비중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6] 차원별 불안정 취업자 비율

(단위: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자(분석표본) 수	5,973	5,897	6,149	6,350	6,553	10,205	10,156
일자리 불확실(J)	11.35	12.16	12.10	10.63	10.15	12.84	12.40
소득 불충분(I)	17.13	17.04	17.09	19.46	19.40	26.23	27.88
노동조건 취약(C)	24.16	24.33	21.03	20.31	19.35	18.44	16.44
사회적 보호 불안전(S)	45.71	44.67	43.54	41.46	41.40	41.25	40.24

가중치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불안정노동지수의 4개 차원을 조합하는 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표 7>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가중치를 적용치 않은 경우, 즉 불안정노동지수의 4개 차원이 동등한 가중치(=1)를 갖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준값(k) 2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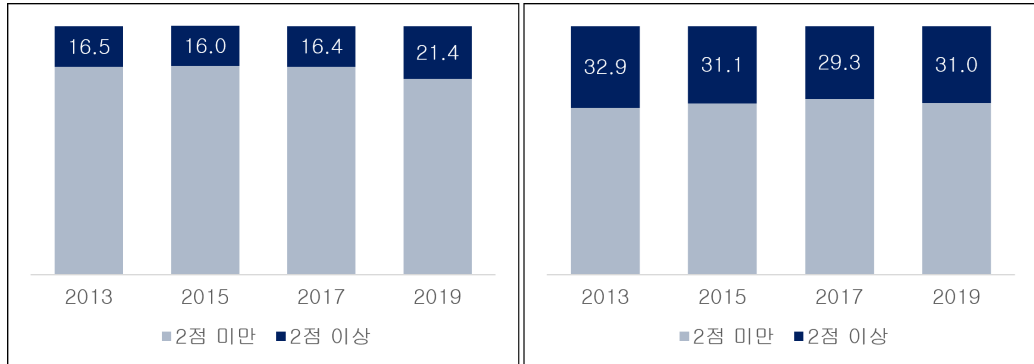
의 차원이 조합하는 것으로 불안정 노동의 성립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작은 가중치의 2개 차원(노동조건 취약 및 사회적 보호 불안전)을 포함하는 일부 조합(CS, JC, JS)이 불안정 노동의 기준값($k \geq 2$)에 미달하여 [그림 2]에서 예시하듯이 2013~2019년의 기간에 걸쳐 가중치 미적용에 비해 9.6~16.4%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 노동을 다차원적 구성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각 차원이 노동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산출해 적용하는 경우 가중치 미적용에 비해 차원들의 상이한 영향력을 고려한 입체적인 측정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엄격한 판별기준에 따라 불안정 노동 비율이 추정되는 것이다.

[표 7] 가중치 적용(하) & 미적용(상) 불안정 노동의 4개 차원 조합 비율 추이

(단위: %)

지수점수	2013	2015	2017	2019	차원조합
<가중치 미적용>					
0	45.37	48.02	48.42	47.25	-
1	21.70	20.91	22.30	21.75	J, I, C, S
2	23.05	21.19	20.36	18.65	JI, JC, JS, IC, IS, CS
3	8.97	9.03	8.42	11.47	JIC, JIS, JCS, ICS
4	0.90	0.85	0.50	0.88	JICS
$k \geq 2$	32.9	31.1	29.3	31.0	
<가중치 적용>					
0.00	45.37	48.08	48.42	47.25	-
0.53	5.63	4.67	4.79	3.28	C
0.88	13.31	12.99	12.79	10.04	S
0.93	0.40	0.29	0.43	0.50	J
1.41	12.37	10.42	9.13	5.71	CS
1.46	0.08	0.13	0.09	0.11	JC
1.66	2.36	2.96	4.29	7.93	I
1.81	4.00	4.47	3.62	3.83	JS
2.19	0.37	0.29	0.44	0.52	IC
2.34	1.71	1.90	1.34	1.39	JCS
2.54	6.18	5.81	6.97	8.34	IS
2.59	0.05	0.07	0.11	0.14	JI
3.07	3.06	2.73	3.02	4.53	ICS
3.12	0.03	0.03	0.03	0.03	JIC
3.47	4.17	4.36	4.03	5.52	JIS
4.00	0.90	0.85	0.50	0.88	JICS
$k \geq 2$	16.5	16.0	16.4	21.4	

주) J: 일자리 불확실, I: 소득 불충분, C: 노동조건 취약, S: 사회적 보호 불안전

[그림 2] 가중치 적용(좌) & 미적용(우)의 불안정 노동 비율($k \geq 2$ 기준)

<표 8>에서는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취업자(분석표본)를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 비율(H)과 불안정 노동 강도(A) 그리고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을 산출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불안정 노동 강도(A)는 이 기간에 72.14~73.69%에 달해 가중치 미적용의 경우(58.05~60.67%)에 비해 대략 1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노동의 차원 수를 기준 삼아 살펴보면, 가중치 적용시에는 불안정 노동의 취업자들이 평균적으로 2.92개 차원의 불안정한 조건에 시달리는 한편, 가중치 미적용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2.37개 차원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안정 노동 강도(A)를 적용한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을 산출해보면, 가중치 적용여부에 따른 M_0 값의 차이가 2013년 7.11%(=19.16-12.05)에서 2019년 3.15%(=18.80-15.65)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3~2019년의 기간에 불안정 노동 비율(H)과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이 보여주는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가중치 적용에 관계없이 2015~2017년 저점¹³⁾으로 하락하다 상승하는 완만한 U자 커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중치 적용의 경우 2018~2019년에 큰 폭의 상승(저점 대비 고점의 상승폭: H +5.31%, M_0 +3.90%)이 이뤄졌음을 확인케 된다. 구체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 노동 비율(H)이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취업자의 16%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8~2019년에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 역시 2018년 전후로 11%대에서 15%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2019년에 불안정 노동의 비중(H & M_0)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 뿐 아니라 경기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침체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해볼 수 있다. 가중치 미적용의 경우에

13) 불안정 노동 비율이 2013~2017년의 기간에 대체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승국면의 경기동향과 관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정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치적 상황조건과 관련지어서는 노동존중의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친기업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펼치던 보수정부하에서 불안정 노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는 불안정 노동의 취업자 비율이 2018년에 완만한 증가를 보이긴 하였으나($H + 2.73\%$, $M_0 + 2.29\%$), 오히려 2013~2014년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중치 적용의 분석결과에 비해 경제와 노동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노동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분석에 있어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차원들에 대해 취업자들이 부여하는 중요성(헤도닉 가중치)을 반영하였을 때 경제와 노동시장 그리고 정부정책 등의 외적 맥락조건과 연계시켜 불안정 노동의 동태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케 된다. 아울러, 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불안정의 양적 크기와 질적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불안정 노동 비율(H)과 강도(A)가 거의 상반된 변동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가중치 적용의 경우, 비율과 강도가 동반 상승하는 2017~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비율과 강도가 상승-하락의 어긋난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이처럼,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강도가 동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구체적으로 불안정 노동의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지만 그들의 불안정 강도는 심화되는 경우와 역으로 불안정 노동인구의 양적 비중이 늘어나지만 불안정의 질적 강도는 완화되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 전체 취업자의 불안정 노동 변동추이

(단위: %, 명)

구분 (분석표본 수)	2013 (5,973)	2014 (5,897)	2015 (6,149)	2016 (6,350)	2017 (6,553)	2018 (10,205)	2019 (10,156)
가중치 적용	불안정 노동 비율(H)	16.47	16.25	<u>16.04</u>	16.17	16.45	20.56
	불안정 노동 강도(A)	73.17	73.16	73.28	73.15	<u>72.14</u>	73.69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	12.05	11.89	<u>11.75</u>	11.83	11.87	15.15
가중치 미적용	불안정 노동 비율(H)	32.93	32.75	31.06	29.72	<u>29.28</u>	32.01
	불안정 노동 강도(A)	58.19	58.35	58.63	58.49	<u>58.05</u>	60.25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	19.16	19.11	18.21	17.38	<u>17.00</u>	19.29

주) 굵은 이태릭 숫자(최고점); 밑줄 숫자(최저점)

2)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표 9>에서는 성별·연령·학력·종사상 지위의 범주를 중심으로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의 비중과 강도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가중치의 적용을 통해 각 범주의 집

14) 가중치 미적용의 경우에도, 2013~2015년과 2018~2019년의 기간에 불안정 노동의 비율 하락과 강도 상승이라는 상반된 변화추세를 보이는 반면, 2015~2018년의 기간에는 비율과 강도가 동반 하락 또는 동반 상승의 형태로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단별 불안정 노동 비율(H)과 불안정 노동 강도(A) 그리고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M_0)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 노동의 비중과 강도에 있어 2013~2019년의 기간에 전체 불안정 취업자의 평균을 상회하는 하위집단으로는 노년층 > 비임금 > 비정규직 > 고졸이하 > 여성 취업자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노년층이 불안정 노동의 비율(57.21~66.22%)과 강도(76.30~78.05%) 모두에 있어 하위집단 중에서 단연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약 2/3 정도가 3개 차원 이상의 불안정성을 갖는 '나쁜' 질의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 범주의 비임금 취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위집단에서 불안정 노동 비율(H)이 각각 29.15~39.74%와 23.62~33.79%에 달하고 불안정 노동 강도(A)가 76.55~77.59%와 68.37~70.12%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약 30~40%의 비임금 취업자와 30% 내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각 약 3.08개와 2.77개 차원의 노동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에 고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서 23.12~31.72%의 취업자가 약 2.94개 차원(72.70~74.18%의 A)의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성의 21.09~27.84%가 약 2.86개 차원(70.53~72.24%의 A)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2차부문의 취약노동자 집단으로 노년, 비임금(자영업자), 비정규직, 고졸 이하 저학력, 그리고 여성이 가중치 적용과 조정된 비율을 통해 그들 집단의 심각한 노동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통상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불안정 노동의 비율이나 강도에 있어 연령층 집단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취업자로 구성되는 분석표본에서 노동시장 밖에 놓여 있는 취업난의 청년층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 비율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2019년의 기간에 걸쳐 가중치 적용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강도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시계열적 추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집단은 2016~2017년에 다소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상당한 폭으로 반등하는 완만한 U자 커브의 변동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불안정 노동의 비율(H)과 조정된 비율(M_0)에 있어 저점-고점 사이의 변동폭이 분석표본의 전체 평균(H : 5.31%, M_0 : 3.90%)을 상회하는 범주별 하위집단은 다음과 같다:

• 비임금 취업자	H	10.59%	2017년 29.15% → 2019년 39.74%
	M_0	8.44%	2017년 22.31% → 2019년 30.75%
• 비정규직 노동자	H	10.17%	2014년 23.62% → 2019년 33.79%
	M_0	7.30%	2014년 16.28% → 2019년 23.58%
• 노년 취업자	H	9.01%	2015년 57.21% → 2019년 66.22%
	M_0	6.14%	2015년 44.65% → 2019년 50.79%
• 고졸이하 취업자	H	8.60%	2015년 23.12% → 2019년 31.72%
	M_0	6.36%	2015년 17.11% → 2019년 23.47%
• 여성 취업자	H	6.75%	2016년 21.09% → 2019년 27.84%
	M_0	4.87%	2016년 15.13% → 2019년 20.00%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비임금·비정규직 집단을 비롯한 취약 노동자집단들을 중심으로 불안정 노동이 양적인 측면(비율)에서 두드러지게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불안정 노동의 강도(A)는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1.55%의 상승에 그쳤고, 하위집단별로도 1.04~2.24%의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중치 미적용의 경우 범주별 불안정 노동의 비율(H & M_0)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하위집단은 노년 > 비임금 > 고졸 이하의 저학력 > 비정규직 > 여성의 순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와 비정규직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부록 표 1> 참조). 그런데,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강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해서 대부분의 하위집단들이 2016~2017년의 저점을 보이는 것은 비슷하나 2013년에 가장 높은 비율(H & M_0), 그리고 2019년에 가장 높은 강도(A) 값이 주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변동추세에의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가중치 적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정 노동의 강도, 즉 질적 수준은 2018~2019년에 크게 악화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불안정 노동 비율(H)에 있어서는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최고값의 시점이 각각 2013년(미적용)과 2019년(적용)으로 설정되는 상이한 변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차원별의 가중치 적용여부에 따라 취업자 전체 뿐 아니라 하위집단별 분석결과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

[표 9]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의 변동추이(가중치 적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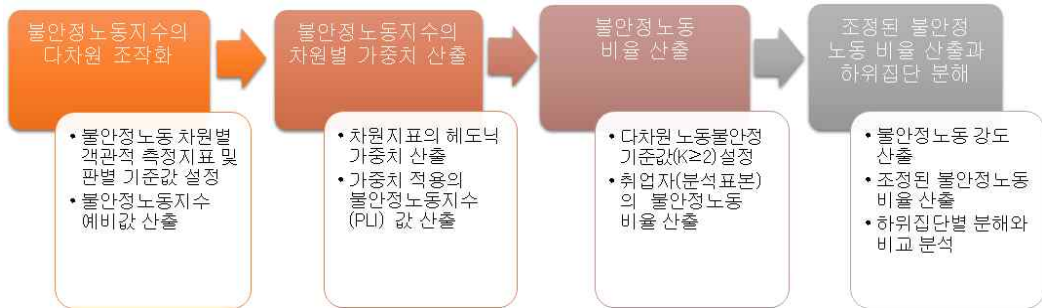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전체	16.47	73.17	12.05	16.25	73.16	11.89	<u>16.04</u>	73.28	<u>11.75</u>	16.17	73.15	11.83	16.45	<u>72.14</u>	11.87	20.56	73.69	15.15	21.35	73.32	15.65
남성	<u>12.36</u>	74.13	<u>9.16</u>	12.82	74.36	9.53	12.55	74.69	9.37	13.13	74.54	9.79	12.84	<u>73.88</u>	9.48	16.60	75.16	12.48	17.18	74.85	12.86
여성	23.32	72.32	16.86	22.01	71.99	15.85	21.89	71.92	15.75	<u>21.09</u>	71.75	<u>15.13</u>	22.22	<u>70.53</u>	15.67	26.92	72.24	19.45	27.84	71.84	20.00
청년	7.21	<u>67.49</u>	<u>4.86</u>	<u>7.20</u>	69.18	4.98	7.60	67.99	5.17	8.79	67.61	5.94	10.14	68.48	6.94	10.84	68.71	7.45	10.57	68.51	7.24
중장년	13.24	71.63	9.48	12.00	70.74	8.49	12.14	70.80	8.60	<u>11.23</u>	70.77	7.95	<u>11.23</u>	<u>69.46</u>	<u>7.80</u>	14.24	71.70	10.21	14.31	70.82	10.14
노년	61.92	77.12	47.75	61.93	77.20	47.81	<u>57.21</u>	78.05	<u>44.65</u>	60.26	77.36	46.61	58.85	<u>76.30</u>	44.90	65.20	76.97	50.18	66.22	76.69	50.79
고졸이하	23.83	73.72	17.57	23.55	73.61	17.33	<u>23.12</u>	74.02	<u>17.11</u>	23.67	73.92	17.49	24.46	<u>72.70</u>	17.79	30.43	74.18	22.57	31.72	74.01	23.47
대졸이상	5.60	69.68	3.90	<u>5.53</u>	70.38	<u>3.89</u>	6.46	69.71	4.51	6.39	<u>69.42</u>	4.44	6.53	69.50	4.53	7.78	71.21	5.54	8.44	70.08	5.92
정규직	<u>2.16</u>	66.39	<u>1.44</u>	2.46	66.36	1.63	2.61	65.51	1.71	2.74	65.66	1.80	2.75	<u>64.81</u>	1.79	3.29	65.09	2.14	3.56	65.72	2.34
비정규직	26.23	68.51	17.97	<u>23.62</u>	68.92	<u>16.28</u>	24.96	69.24	17.29	26.01	68.84	17.90	28.64	<u>68.37</u>	19.58	32.18	70.12	22.57	33.79	69.79	23.58
비임금	32.07	76.56	24.56	31.11	76.62	23.83	30.66	76.95	23.59	30.40	77.28	23.49	<u>29.15</u>	<u>76.55</u>	<u>22.31</u>	37.56	77.59	29.15	39.74	77.39	30.75

주) 굵은 이탤릭 숫자(최고점); 밑줄 숫자(최저점)

5.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전체 취업자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 노동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적용하였다는 점, 차원지표들(일자리 불확실, 소득 불충분, 노동조건 취약, 사회적 보호 불안전)의 상이한 영향력 크기를 확인하여 불안정노동지수의 산출에 헤도닉 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강도를 반영하는 조정된 불안정 노동 비율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시도하는 시론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차원 분석의 진행절차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2013~2019년의 기간에 불안정 노동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16.04~21.35%로 나타나 가중치 미적용의 29.28~32.93%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밝히는 수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차원 지표들의 판별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노동자의 불안정노동지수 값을 갖고 추산한 불안정 노동 비율(H)은 여러 차원의 불안정 조건들을 검토치 않거나 차원지표들의 가중치를 고려치 않고 계산되는 수치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엄격하게 산정된 보수적인 수치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3~2019년의 기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도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불안정 노동 비율(조정된 값 포함)이 다소 상이한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소득 불충분의 높은 영향력 크기(41.5%)를 반영하는 가중치 적용의 분석이 미적용의 분석에 비해 2018~2019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및 고용실적 악화 등과 같은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맥락적 조건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여 불안정 노동의 변화동향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가중치의 방법론적 유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중치의 파악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세부 차원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를테면, 이번 연구에서 노동 불안정에 대해 소득 불충분이 가장 높은 가중치 비중(41.5%)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불안정 노동자집단의 일자리 질을 개선코자 하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그들의 소득향상을 고용 지속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조건 개선에 비해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을 필요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에 있어 일정 기준 이상(불안정의 해당 차원 수 $k \geq 2$)을 충족하는 불안정 노동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에 더하여 불안정 차원의 누적비율, 강도(intensity, A)를 산출-반영하는 조정된 비율(M_0) 값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엄밀하게 불안정 노동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유의미한 방법론적 시도로 평가될 만하다. 불안정 노동의 현황과 변동추이에 대한 문제진단에 있어 그 규모 또는 비율의 양적 증감을 따지는 것보다 더불어 불안정 노동의 질적 수준, 즉 강도를 규명하는 것이 그 문제현상의 복합적인 실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적 정책대응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떤 때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문제시되고, 또 다른 때 취업자들의 불안정 강도가 상당히 악화되어 그 정책적 대응이 달리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아예 규모와 강도 모두 심각해져 불안정 노동의 양적-질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입체적인 문제진단과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면 불안정 노동의 양적 규모/비율과 질적 강도를 함께 파악-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 비율을 살펴보면, 통상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이 높은 불안정 비율을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노년이 가장 많이 불안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임금>비정규직>고졸 이하 학력 & 여성의 순으로 가중치 여부 관계없이 불안정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강도에 있어서도 노년 및 비임금이 76%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대체로 고졸 이하 학력과 여성이 평균 이상 값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가중치 적용의 유용성은 다차원적 불안정 노동의 시계열적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서도 적용된다. 2013~2019년의 기간에 걸쳐 시계열상에 하위집단별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비임금 자영자들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비정규직 > 노년 > 고졸 이하 학력 > 여성 의 취업자집단 순서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이같은 취약노동자집단이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정도가 클 뿐 아니라 그 위험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응하는 정책처방을 강구할 때 이들 집단을 우선순위 대상의 정책타겟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위집단별로 불안정 노동의

위험 정도를 검토하여 정책 처방을 마련코자 할 때에도 가중치와 강도를 감안한 다차원 분석이 세부적인 문제 현황과 변동추세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 유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강남훈 (201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12-42.

김수영, 하은솔, 김영 (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1). 89-127.

김영아, Bonneuil N. (2019).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김기민, 김영미, 김지경, 변종석, 이고은, 이해님, 이해정 (2019).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IX). 한국노동연구원.

김정규, 김교성 (2019). 일자리 이동 여부에 따른 불안정 노동 상태변화. 한국비교정부학보. 23(2). 201-229.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변금선, 이해원 (2018).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보건사회연구. 38(3). 129-160.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2000).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불안정노동 연구. 서울: 문화과학사.

서정희,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한국사회정책. 22(4). 7-42.

성재민 (2021). 비표준 or 비정형 취업자 현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대안노동포럼 발표자료.

신경아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페미니즘 연구. 19(1). 173-206.

윤진호 (1990). 한국의 불안정 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서울: 후마니타스.

이호연, 양재진 (2017). 퍼지셋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26(4). 65-103.

정홍준 (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고용노동브리프. 97.

채석진 (2016). 테크놀로지, 노동, 그리고 삶의 취약성. 한국언론정보학보. 79. 226-259.

최혜지, 정은수 (2018).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25(2). 217-237.

황덕순 (2000). 불안정 취업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44. 63-83.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 476-487.

Armano, E., Bove, A., & Murgia, A. (2017). *Mapping precariousness, labour insecurity and uncertain livelihoods: Subjectivities and resistance*. London: Routledge.

Broughton, A., Green, M., Rickard, C., Swift, S., Eichhorst, W., Tobsch, V., Magda, I., Lewandowski, P., Keister, R., Jonaviciene, D., Martin, N., Valsamis, D., & Tros, F. (2016). *Precarious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Parliament.

Cavapozzi, D., Han, W., & Miniaci, R. (2015). Alternative weighting structures for multidimensional poverty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3(3). 425-447.

- Chaaban, J., Irani, A., & Khoury, A. (2016). The composite global well-being index (CGWBI):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human develop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1), 465–487.
- Choonara, J. (2019). *Insecurity, precarious work and labour markets*.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Decancq, K. & Lugo, M. (2013). Weights in multidimensional indices of wellbeing: An overview. *Econometric Reviews*, *32*(1), 7–34.
- Della Porta, D., Hanninen, S., Siisiainen, M., & Silvasti, T. (2015). The precarization effect. In Della Porta, D., Silvasti, T., Hanninen, S., & Siisiäinen, M. (eds). *The new social division: Making and unmaking precariousnes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udge, J. (2017). The future of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Labour law,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old power resource theory.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9*(3), 374–392.
- Fullerton, A. S., Robertson, D. L., & Dixon, J. C. (2011).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ility and insecurity: A multilevel study of perceived job insecurity in 27 European countri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22*, 9–41.
- García-Pérez, C., Prieto-Alaiz, M., & Simón H. (2017).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precarious employ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4*(2), 437–454.
- _____. (2020).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precarious employment using hedonic weights: Evidence from Spai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3*, 348–359.
- Hewison, K. (2016). Precarious work. In Edgell, S., Gottfried, H., & Granter, E. (eds). *The Sage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work and employment*. London: Sage.
- ILO (2012).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Outcome document to the Workers' Symposium 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Geneva: ILO.
- _____.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Geneva: ILO.
- Kalleberg, A. L. & Vallas, S. P. (2017). Probing precarious work: theory, research, and politic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31*, 1–30.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 _____.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 to 2000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reshpaj, B., Orellana, C., Hemmingsson, T., Johansson, G., Kjellberg, K., Jonsson, J., Bodin, T., Burström, B., Davis, L., & Wegman, D. (2020). What is precarious employment? A systematic review of definitions and operationalizations fro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46*(3), 235–247.
- Lambert, R., & Herod, A. (eds.) (2016). *Neoliberal capitalism and precarious work: Ethnographies of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Edward Elgar Publishing.
- Manolchev, C., Saundry, R., & Lewis, D. (2018). Breaking up the 'precarariat': Personalisation, differentiation and deindividuation in precarious work group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39*(4), 1–24.

- McKay, S., Jefferys, S., Paraksevopoulou, A., & Keles, J. (2012). *Study on precarious work and social rights*. Working Lives Research Institute.
- Neilson, B. & Rossiter N. (2005). From precarity to precariousness and back again: labour, life and unstable networks. *Fihreculture*. 5.
- 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Paris: OECD publishing.
- Rogers, G. & Rogers, J. (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Sargeant, M. (2016). The meaning of the terms precarious work and vulnerable workers. *E-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bour Studies*. 5(3). 1-10.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New York: Bloomsbury.
- Strauss, K. (2018). Precarious work. In Clark, G. L., Feldman, M. P., Gertler, M. S., & Wójcik, D. (eds). *The new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osko, L. (2010).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표 1] 하위집단별 불안정 노동의 변동추이 (가중치 미적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H	A	M ₀
전체	32.93	58.19	19.16	32.75	58.35	19.11	31.06	58.63	18.21	29.72	58.49	17.38	<u>29.28</u>	<u>58.05</u>	<u>17.00</u>	32.01	60.25	19.29	31.00	60.67	18.80
남성	31.31	<u>57.88</u>	18.12	31.80	58.21	18.51	29.75	58.63	17.44	28.74	58.47	16.80	<u>27.71</u>	58.11	<u>16.10</u>	30.98	60.01	18.59	29.47	60.63	17.87
여성	35.62	58.64	20.89	34.33	58.58	20.11	33.28	58.62	19.51	<u>31.30</u>	58.52	<u>18.32</u>	31.80	<u>57.97</u>	18.44	33.67	60.61	20.41	33.38	60.71	20.26
청년	16.14	<u>53.72</u>	8.67	<u>13.01</u>	55.83	<u>7.26</u>	13.62	55.06	7.50	13.66	55.10	7.53	15.03	56.04	8.42	16.07	56.63	8.53	14.47	55.82	8.08
중장년	31.97	56.61	18.10	31.34	56.10	17.58	29.28	56.45	16.53	26.80	56.13	15.04	<u>25.78</u>	<u>55.58</u>	<u>14.33</u>	27.44	57.53	15.78	25.57	57.68	14.75
노년	79.72	64.90	51.73	79.41	65.12	51.72	74.85	65.42	48.96	75.04	64.96	48.74	<u>73.59</u>	<u>64.07</u>	<u>47.15</u>	76.92	66.13	50.87	74.90	66.47	49.78
고졸이하	44.95	58.84	26.45	44.84	59.01	26.46	43.77	59.16	25.90	41.88	59.25	24.81	<u>41.84</u>	<u>58.75</u>	<u>24.59</u>	44.93	61.17	27.48	44.11	61.71	27.22
전문대졸 이상	15.18	<u>55.33</u>	8.40	14.99	55.45	8.31	13.88	56.34	7.82	13.83	55.51	7.68	<u>13.70</u>	55.42	<u>7.59</u>	15.29	56.76	8.68	14.67	56.74	8.33
정규직	7.40	52.36	3.87	6.30	52.37	3.30	5.73	52.69	3.02	5.88	52.39	3.08	5.45	<u>52.21</u>	2.84	<u>5.05</u>	53.72	<u>2.71</u>	5.15	53.60	2.76
비정규직	37.08	<u>55.95</u>	20.75	35.84	56.84	20.37	36.54	56.77	20.74	<u>35.52</u>	57.17	<u>20.31</u>	38.09	57.04	21.73	39.09	59.06	23.09	38.62	59.56	23.00
비임금	70.06	59.98	42.02	70.31	59.79	42.04	67.63	60.23	40.73	64.46	60.01	38.68	<u>62.23</u>	<u>59.45</u>	<u>37.00</u>	68.34	61.62	42.11	67.88	62.19	42.21

주) 굵은 이탤릭 숫자(최고점); 밑줄 숫자(최저점)

◀ Abstract ▶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carious Labor in South Korea by Using Hedonic Weights and Precarious Intensity

Byoung-Hoon Lee* · Eunkyung Kim** · Rira Song***

This study conduct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 precarious labor among working population, by using the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data. Our study contrasts with the existing research of precarious labor, in that it grants hedonic weights to four dimensional indicators (i.e. uncertainty of job, insufficiency of income, vulnerabil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insecurity of social protection), which differ in the size of constituent impact on the composite index of labor precariousness, and offers the adjusted precarious labor ratio, reflecting the intensity of precariousness. The weighted estimation shows that in the period of 2013~2019 the ratio of precarious labor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is 16.04~21.35%, which is lowered than 29.28~32.93% of unweighted estimation. The adjusted ratio of precarious labor, calculated with the intensity of precarious dimensions, is estimated to be 11.75~15.65% in the same period. When examining the ratio and intensity of precarious labor by subgroups, it is reaffirmed that the senior group (over 65 year old) is the most precarious, followed by non-wage workers (self-employed), non-regular workers, low education group (high school and below), and female in their relative size.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trends shows that the during 2013~2019 non-wage worker group has the largest growth in the ratio and intensity of precarious labor, and the subgroups of non-regular worker, the senior, low education, and female are higher than the averaged increase of the working popul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equipped with methodological estimation of weights and intensity, is useful for devising policy solutions to tackle with the risks of labor precariousness, since it can shed light on the problematic situation and dynamic changes of precarious labor in a more in-depth manner.

Keywords: precarious labor, multidimensional analysis, precarious labor index, hedonic weights, precarious labor intensity

◆ 2022. 1. 30. 접수 / 2022. 2. 28. 1차수정 / 2022. 3. 20. 게재확정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 Chung-Ang University, Da 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